

EPA 발효로 들쭉이는 식품시장

도쿄지사

관세폐지 확대로 무역시장 호조 예상

• 90% 이상의 품목에서 일본과 유럽연합(EU)간 관세를 폐지하는 경제연대협정(EPA)이 2월 1일 발효됐다. 농림 수산물의 경우, 장기적으로 82%의 관세가 철폐된다. 유럽제품의 수입이 늘 것으로 보이나 일본 술(니혼슈), 녹차, 간장 등 일본제품의 수출에도 순풍이 불고 있어 일본-유럽연합 간 식품무역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.

EPA효과로 식품가격 인하 물결

• 특히 발효 후 즉시 관세가 제로가 되는 와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. 대형 유통업체 각사는 와인의 가격인하와 매장 확대의 움직임을 보이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. 세븐&아이 홀딩스 및 이온 등이 와인 가격인하를 시행하고, 세코마는 크로와상의 가격을 내렸다. 소비위축이 여전한 일본시장이지만 EPA를 계기로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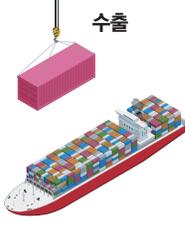
EPA 발효에 맞춘 주요 유통업체의 대응

| 유통업체명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세븐&아이 HD | 유럽산 PB 와인 3종 8~9% 가격인하 |
| 이온 | 최대 330종 와인 평균 10% 가격인하 |
| CAMEL COFFEE | 칼디 커피 팜에서 와인 10종 20% 가격인하 |
| METRO Cach & Carry Japan | 업무용 와인 약 270종 평균 8% 가격인하 |
| 세이조이시이 | 올리브 및 생 햄의 일부상품을 가격인하. 와인 112종도 할인 |
| 메이지야 | 도쿄·히로오 점포에서 치즈 및 와인 매대 확장 |
| 세코마 | 유럽산 기지로 만든 크루아상과 커피세트 할인 |

일본 국내 산업에도 영향 파급

• 일본은 작년 말에도 환태평양경제협정(TPP)을 발효한 바 있는데다 이번에 맺어진 EPA로 대대적인 무역자유화의 길이 열린 셈이다. 연이은 대형 경제협정으로 일본 산업계에서는 수출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. 특히 와인 및 치즈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인하를 기대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이에 유통업체들이 즉각 대응을 시

식품 중심으로 일본-유럽 간 수입관세 인하

| 구분 | 국가별 | 현재 | 발효 후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수입  | 와인 | 15%또는 1리터당 125엔 | 즉시 제로 |
| | 내추럴 치즈 | 29.8% | 수입물량 내에서 16년째에 제로 |
| | 아이스크림 | 21~29.8% | 6년째까지 63~67% 삭감 |
| | 초콜릿·과자 | 10% | 11년째에 제로 |
| | 의류 | 4.4~13.4% | 즉시 제로 |
| | 가방, 핸드백 등 | 2.7~18% | 11년째에 제로 |
| 수출  | 간장 | 7.7% | 즉시 제로 |
| | 녹차 | 무관세~3.2% | |
| | 소고기 | 12.8%+100킬로그램 당 141.4~304.1유로 | |
| | 수산물 | 무관세~26% | |
| | 알코올음료 | 무관세~100리터당 32유로 | |
| | 승용차 | 10% | |

작, EPA 발효와 동시에 와인가격 인하를 시작하는 등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. 업계에서는 관세인하 효과로 채산성이 2~3억엔(약 20~30억원)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- 이번 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프트 치즈가 무관세 품목으로 확정되었고, 유제품이 최대 수혜품목이 되고 있어, 일본 내 치즈 등의 유제품 생산업체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. 생우유생산자, 유통자 및 판매업자 연합인 '밀크'의 마에다(前田浩史)전무는 일본농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“일본의 소비자는 국산제품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. 품질에 대해 까다로운 국내시장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, 내추럴 치즈 등의 품질을 세계 표준까지 끌어올리고, 일본 특유의 매력적인 유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.”라고 답했다. 생산자와 메이커 등 각 관련업계에서는 품질 유지와 독자적인 제품 개발로 대응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.

품질만이 가격경쟁을 넘어서는 길

- 국가간의 경제협정은 경제 활성화와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만, 역으로 국내시장에는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. 대다수의 생산자 및 기업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지만,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품질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높은 무관세 수입제품을 너끈히 뛰어넘어 내국인 소비자들에게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 것이다.
- 유럽과 한국의 대일수출 품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, 이번 협정이 대일 한국 농식품 수출품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스크림, 치즈 등 일부 교차되는 품목 등에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. 한국만의 독자적인 제품 개발과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향상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.

출처 : 닛케이 2019년 1월 27일자 / 1월 31일자, 일본농업신문 2019년 2월 1일~2일자, 닛케이 MJ 2019년 2월 1일자